



扶安林氏金浦宗報

3호
2017년 12월 2일

◎ 발행일 : 2017년 12월 2일 ◎ 발행인 : 임종호 010-4734-8002 ◎ 편집인 : 임종상 010-5343-3441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29-1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을 후손에게 계승해야 합니다



다소 미흡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종회회원님들의 성원과 참여속에 임춘(林椿) 서하공(西河公) 문학비 제막을 통해 부안임씨 김포종회의 자긍과 위상을 크게 드높였습니다. 일찍이 서하공 할아버지께서는 “무릇 인간으로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모른다면 이보다 큰 불행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선행을 쌓으면 마땅히 후손에 미칠 것”이라고 서하공사적에 유산으로 남기시었습니다. “참된 가치를 알면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후손들이 받아서 실천하고 또 자손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선인의 정신을 우리의 후손들이 만만대 후세에 이르기까지 계승토록 암시를 주신 것으로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또한, 독골 종중부지에 완공된 부안임씨추모공원을 성역화했음은 물론, 독립운동가이신 임용우(林容雨) 순국열사 공덕비를 건립해 후손들에게 조상의 우월성과 선비정신, 그리고 우수한 가문의 성가를 대내외에 널리 과시하기도 해 아직도 가슴 뿌듯한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후손들이 조상에 대한 흠모의 노력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정성 일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결코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로 단결된 종회 회원들의 마음이 함께하고 실천될 때 우리는 뿌듯한 보람과 긍지를 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이 잘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우리에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조상님들의 얼과 정신을 지속가능하게 계승시켜 나가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됐던 쿤타킨테라는 흑인이 주인공인 ‘뿌리(Roots)’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흑인 한가족의 여정을 통해 고통속에서도 생존하고 그들만의 유산을 지키려했고 그들의 의지로 살아가면서 노예제도의 역사적인 현장을 재조명한 영화로 당시에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뿌리 없는 민족이나 가정은 없다는 메시지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안임씨 김포종회도 이처럼 뿌리의 근간이 아주 깊이 배긴 역사성과 정통성을 지키며 살아 오고 있습니다. 뿌리의 기초는 단연코 회원들의 화합과 결속입니다. 모래사장에 아무리 견고하게 건축을 한들 태풍에 풍비박산 나는 건 순식간이지만 기초를 튼실하게 하고 좋은 재질로 지었을 때 오래도록 멋진 건축물이 탄생되어 지듯,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백여년이라는 긴 역사를 함께하며 대를 이어 지켜오고 있는 부안임씨의 계보와 족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우리 후손들은 조상의 정신과 얼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

으며 후손에게 계승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이 노력을 다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전통으로 이어가기 위해 부안임씨 뿌리인 얼과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철저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부안임씨 종회의 얼굴이며 뿌리이고 자주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임씨 김포종회는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세계사의 물결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우방도, 친구도 없는 냉혈한 세상이고 국내외적으로도 어려운 경기침체 등은 인간 관계에서 까지 상당한 우려와 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변화시대이고 새로운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 내지는 도약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안임씨 김포종회도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랜 기간 조상때부터 대물림해 왔던 흘러간 역사를 뒤돌아 보고 새롭게 일신해야 하는 당면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회장이나 몇몇 이사들의 생각에 국한해서는 안되고 종회 회원과 가족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해 나가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단결과 화합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말씀중에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상의 얼을 되새겨 종친간에 우애있고 협동 단결해야하며 자손들을 훌륭하게 잘키워 국가에 충성하고 조상에 효도하는 그런 가문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부안임씨 김포종회 가족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또한 많은 성원과 참여를 통해 나날이 종회가 발전하고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정유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뒤돌아보고 그 바탕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때입니다. 댁내 두루 평안들 하시고 명년도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윤택한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2일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중회장 임종호



종친회 활동



존경하는 부안 임씨 밀직공과
김포 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포 중중 종친회장을 수행하
고 있는 종근 입니다. 2017년 붉
은 닭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
니다. 닭은 12가지를 상징하는
동물 중 유일하게 날개를 갖고
있고 5가지 덕을 갖춘 동물로 여
겨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 해서 문(文) 날카로운 발톱을 갖
고 무기로 사용 할 수 있다 해서 무(武) 적을 만나면 물리
서지 않고 싸운다고 해서 용(勇) 먹을 것이 있으면 주위에
알려 나누어 먹는다고 해서 인(仁) 늘 시간을 지켜 새벽을
알려 준다고 해서 신(信) 즉 문, 무, 용, 인, 신의 5덕을 갖
춘 동물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붉은 닭의
해입니다만 남은 기간이나마 닭처럼 5덕을 갖추고 하늘로 비상하는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부안 임씨 김포 종친회는 종인들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해 매
년 종인들이 모시고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시행한 종친회 사
업으로 종인들께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1년에 1회
시행하는 행사로 관심이 적어 참여 하시는 종인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
로 매년 종인을 모시고 관광을 계속 시행 할 계획이오니 많은 종인들
께서 참여 하시어 중중에 관심과 종친회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부안 임씨 밀직공과 김포 중중에서 추모공원을 조성 운
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백년대계로 종인들께서 많이 이용 하실 것으로 예측 됩니
다. 조성된 추모공원 관리를 위하여 중중 이사회에서 관리 규정을 제



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인께서는 추모공원 관리 규정을 인지하시어
본 추모공원 유지 관리에 차질 없이 영구히 우리 종일들께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또한 추모공원 관리 차원으로 묘지를 사용
전에 김포 중중 추모공원 관리 측에서 위치 지정을 받아 지정된 위치
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필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붉은 닭의 해를 마무리 하면서 변함없는 김
포 종친회 종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 되시고 각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해가 되기를 거
듭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2일
부안 임씨 밀직공과 김포 종친회장 회장 임 종 근

<부음> 林炳仁 문장어른 別世

한집안의골격을 이루는 축을 대들보라합니다.부안임씨 종회의 정신적
인 대들보시었던 임병인(林炳仁)문장어른께서 지난 9월27일(陰)지병으
로 별세하셨습니다.향년79세.

크신 건강체구에 평소 인자하시고 자상하셨던 문장어르신께서는 “조
상의 정신과 전통을 후손만대에까지 이어져 부안임씨의 명성을 이어야
한다”고 늘 유시처럼 말씀하시고 특히,학사공 시제때에는 제일 먼저 오
셔서 조상의 제비를 손수 깨끗이 닦아 정렬하시던분이셨습니다.

슬하에 1남2녀를 두시었고,장남 용수(容洙,51세)씨는 미국 뉴욕에서
공무원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동생 병운(炳雲,73세)씨가 서울 양천구
에 살고 있습니다.삼가 문장어르신의 명복을 빕니다.

종인 소식



임대식
청와대 차관급공무원(과학기술혁신본부장), 대학 교수

출생 부안 임씨 29대 임 문, 4자의 아들로
1965년, 서울특별시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소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카이스트(교수)

수상 2016년 제16회 한국과학상

경력 2017.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016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2011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세포주기분과 분과장
2010~ 카이스트 히포 세포분열 분화창의연구단 단장

청년이 나시고 활동해야 종중이 체면선다

-내년 5월, 청년회 창립5주년 행사 준비 등 만전-



“위로는 선조를 위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일가간에 화목하고 정의를 이루는데 앞장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에 창립된 부안임씨 김포 청년회(회장 林鍾光)가 새롭게 혁신과 변화를 꾀하고 나섰습니다. 청년회 조직과 활동으로 그간 다소 침체되었던 우리 문중의 종사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평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사람이 여러파에 따라 갈라지고 세대 간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까지도 그리고 오가는 정마저도 멀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중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후손들에게 조상의 얼과 정신을 계승 발전 시켜나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은 청년회의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이러한 역사적 당위성을 고려해 청년회에서는 매년 ▲단합행사와 연찬회 ▲부안임씨 뿌리 심기 사업인 족보 읽기운동 ▲선조묘향사업 및 제초작업 ▲문장가 서하공 문학토론 등을 어린 초, 중, 고, 대학생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회 전가족이 참여하는 문수산 등산대회를 내년 5월중에 대규모로 실시해 가족, 친지, 이웃간에 소통과 하나의 조상이라는 동질 의식과 사명감을 폭넓히도록 하는데 노력에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청년회 창립5주년에 즈음해서 회원 단합행사를 본관인 전북 부안을 찾아 선조묘향알현과 현지 종중간 대화를 통해 조상에 대한 역사

의식과 흠모정신을 배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한 핏줄의 종사는 어느 다른 모임과 달리 이를 없애려해도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林鍾光 청년회장은 “오랜 세월 면면히 이어 내려온 우리 부안임씨 김포종중은 우리 후손들이 살아있는 한 앞으로도 만대에 이어 내려가야 한다”며 “이에 청년회가 앞장서 웃조상과 후대의 가운데서 첨병역할을 성실히 완수해야할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先祖 時祭 案内

忠節公	林八及	(음)	3월 3일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文憲公	季美	(음)	5월 20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연천제)
西河公	椿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敬世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恭惠公	淑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判事公	澤	(음)	5월 20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연천제)
密直公	大光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典書公	蘭秀	(음)	9월 9일	충남 연기군 동면 불파미
學士公	繼禎	(음)	10월10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독골

부안임씨 김포종중 임원명단

직 책	이 름	전화번호	직 책	이 름	전화번호	직 책	이 름	전화번호
고문	임용득	010-6325-2895	회장	임종호	010-4734-8002	이사	임종상	010-5343-3441
고문	임중기	011-9892-0405	부회장	임종근	010-5328-9205	이사	임종훈	010-3792-2132
고문	임종학	010-8387-1477	총무이사	임도연	010-9553-9369	이사	임종선	010-2287-0945
고문	임중철	010-2588-0563	이사	임종문	010-5270-6839	이사	임찬기	010-9023-5693
문장			이사	임종수	010-2388-8840	이사	임종철	010-5340-4954
종손(부회장)	임병일	010-5470-0163	이사	임한기	010-6237-2978	이사	임종광	010-7600-8082
감사	임문기	010-8519-1773	이사	임충실	010-3396-3394	이사	임병호	010-2739-7750
감사	임중철	010-2327-2974	이사	임용혁	010-3718-6549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중의 전자족보를 간행합니다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지명된 전자족보 간행 추진위원장 임종학입니다. 족보는 시조로부터 역대조상의 얼과 역사가 담겨있는 나와 우리집안의 역사책으로 가장 소중하고 보물처럼 간직해야 할 중요한 책입니다. 족보는 같은 시조아래 다른 계파와 본관을 모두 수록한 대동보와 본관 단위의 종보, 한 종파만을 수록한 파보로 나누어 부르며, 금번 부안임씨 밀직공파(김포) 파보를 기존의 인쇄된 책이 아닌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전자족보를 새로이 만드는 것입니다.

족보는 세(세)에 따라 이름을 넣는 돌림자(항렬)를 표로 작성하고 출생과 부인의 관향, 벼슬 및 공적을 기록하고 사망일과 묘지 위치를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일부 귀족 집안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신분과 가문의 상징으로 보편화되었습니다.

서하문학에 나오는 [중추회음서]를 볼 때 우리 임씨는 고려 초기인 1170년대에도 족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족보는 20~30년의 주기로 새로운 출생자와 사망자 그리고 결혼 후 부인의 관향과 딸들이 출가할 때 배우자의 관향을 기록합니다. 돌림자(항렬)은 대개 우주의 질서와 틀인 음양오행의 이론에 따라 금, 수, 목, 화, 토의 상생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족보를 새로 보정하려면 교통과 통신

이 어려워 수집에만도 몇 년이 걸렸고 수집과정에서 부정확한 기록으로 교정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인쇄와 배포 역시도 한집에 1권으로 제한 공급하다 보니 차남들은 어려서부터 족보를 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교적 관습인 관준민비(官尊民卑) 사상에 젖은 족보체계는 아직도 관학을 존중하고 사학을 천시하는 경향이 농후하며 한문으로 기록되다 보니 찾아 보기 어려웠습니다. 핵가족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는 봉건사상의 유물로 도외시 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서 보듯이 족보는 피의 역사이고 혈연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자족보는 현 시대에 가장 적합한 편리성과 추후 개편 및 보정에도 매우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입력해 놓으면 언제고 추가 개편과 배포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찾아 볼 수 있기에 젊은 세대들이 관심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자족보를 간행하는 일은 일부 추진위원들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종인 모두가 참여하는 이 사업에 적극 동참 하시어 새로이 추가 기록될 인명과 내용들을 가까운 위원들에게 보내 주셔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기한이 늦으면 그만큼 간행도 늦어지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새롭고 보기 쉬운 전자족보를 완성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종인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2017년 12월 2일

부안임씨 밀직공파(김포) 전자족보간행 추진위원장 임종학

훌륭한 조상을 찾아서 (海史 林承翼 조부님)



임 휘승익(林承翼) 조부님의 자는 경하(景河) 이고 호는 해사(海史) 이시다. 부안임씨 시조이신 계자미자(季美)의 26대손이시고, 부친 형자석자의 둘째 아들로 월곶면 개곡리에서 태어나셨다.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선생 문하에서 사사 받으셨고 갑오경장과 동학 농민봉기등으로 혼란한 시절인 갑오(甲午)년 사마시(司馬試)에 등과(登科) 장원급제하여 정3품 통정대부 돈녕부 도정(通政大夫 敦寧府 都正)에 제수되셨다. 그 무렵 서하공(西河公)의 18대손인 하운공 임재호(林在嶠)께서 실존된 서하공의 묘소를 찾으려 모진 고생과 7년간 송사를 진행하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병으로 타계하셨다.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신 해사공께서 선조의 가승문집 세보 지식 등을 가지고 공의 특출한 문장으로 고종황제에게 직접 상주하셨고, 고종25년 2월 어명판결(御命判決)을 받으셨습니다. 서하공의 600여년 동안 실전된 묘소를 찾아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우리 가문(家門)에 큰 공과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옆면의 한시는 과거시험(司馬試)문제 제목과 이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한 답안지로 시험과제는 “其見天地之心 천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시로 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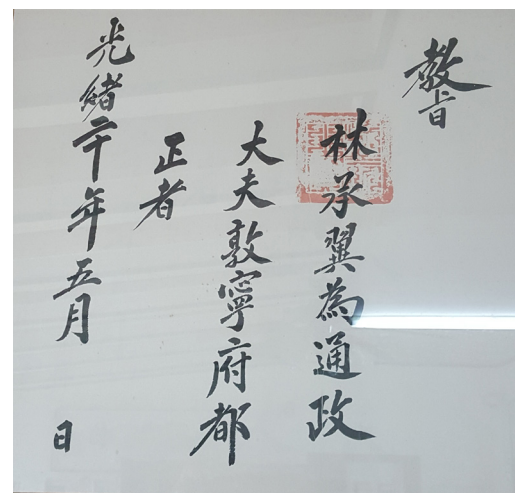
시제(과거시험 문제)를 보고 짧은 시간에 이러한 답을 시로 표현하셨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당시의 과거시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종중의 문화재급 보물이라 할 것입니다.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 문화재 복원 업무를 하는 지인 한 학자에게 번역을 의뢰했는데,

몇 일후 답변이 “주역의 철학과 태평성대를 노래한 것으로 단순히 사전식의 해석으로는 올바른 번역이 되지 않는다. 사전과 전거(역사 속에서 말이나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헌상 출처를 찾아 해석)를 통하여 번역해야 한다.”며 문화재 고서적 전문위원인 권경렬 박사에게 재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원본은 승자익자의 5대 손인 임종철 종중이사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으며 훌륭한 조상의 발굴과 선양 차원에서 번역하여 공개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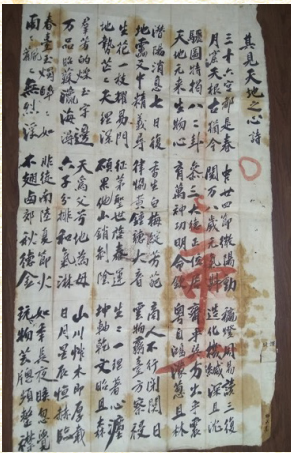
편집인 임종상



<천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¹ 其見天地之心 詩

삼십육궁이 모두 봄이니 ² 월굴, 천근은 고금이 다르지 않네	三十六宮都是春 月窟天根古猶今	생화(生花) 한 가지 ¹⁶ 가 역문(易門)에서 빛나니 땅의 형세는 망망하고 하늘의 이치는 깊네	生花一枝耀易門 地勢茫茫天理深
이십사절기의 중간 ³ 에 양이 약하게 생겨나고 ⁴ 일만팔천세 ⁵ 가 지나도록 원기가 이어지네	中廿四節微陽動 閱萬八歲元氣斟	정모(征茅) ¹⁷ 는 성대에 대운을 열고 석과(碩果) ¹⁸ 를 경계삼아 박괘(剝卦)의 음을 없애네	征茅聖世啓泰運 碩果他山銷剝陰
가을 등불 아래서 주역을 반복해 읽으니 조화와 기함(機緘) ⁶ 의 이치가 깊고도 깊네	穉燈周易讀三復 造化機緘深且沈	생생(生生) ¹⁹ 의 한 이치를 늘 염두에 두니 지축(地軸)과 천문(天文)이 밝고도 삼엄하네	生生一理著心漣 坤軸乾文昭且森
여도(驪圖) ⁷ 에서 특별히 육십사괘를 도출하니 천지는 원래 만물을 내는 마음을 지녔다네	驪圖特揭八八卦 天地元來生物心	각종 화초가 옥우(玉宇) ²⁰ 가에 선명하고 만물이 밝게 영해(瀛海) ²¹ 가에서 소생하네	群芳的燦玉宇邊 萬品昭蘇瀛海潯
삼재(三才) ⁸ 의 큰 덕이 제 자리를 잡으니 신공으로 만물을 길러내는 천명이 공경스럽네	參三大德正位居 育萬神功明命欽	하늘은 아버지가 되고 땅은 어머니가 되니 여섯 자식 ²² 분배하여 화기가 넘치네	天爲父兮地爲母 六子分排和氣淋
손방(巽方)에서 정제하고 진방(辰方)에서 나오니 ⁹ 齊乎巽方出乎震	齊乎巽方出乎震	산천초목을 두텁게 받쳐 주고 일월성신이 항상 밝게 비취 주네	山川草木卽厚載 日月星辰恒赫臨
저 혼돈의 태초부터 기운이 가득하였다네	粵自鴻濛葱且林	춘대(春臺)의 옥촉(玉燭) ²³ 에 만족해하니 비바람이 적절하여 뜨겁거나 음침함이 없네	春臺玉燭皞皞如 雨雨飄飄無烈淫
잠양(潛陽)이 소식하여 칠일 만에 회복하니 ¹⁰ 지뢰괘(地雷卦)의 효(爻) ¹¹ 에서 정미한 이치를 찾아보네	潛陽消息七日復 地雷卦中精義尋	남쪽 육지의 여름철 화기(火氣)도 그러하고 서쪽 교외의 가을철 금덕(金德) ²⁴ 도 그렇다네	非徒南陸夏節火 不翅西郊秋德金
향기는 흰 매화가 꽃을 피울 때 생기고 음률은 황종(黃鐘) ¹² 에서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네	香生白梅綻芳葩 律協黃鐘聽大音	일 년 같은 긴 밤에 잠이 홀연 깨어 서재에서 사물을 완미하며 옷깃을 자꾸 가다듬네	如年長夜睡忽覺 玩物芸牕頻整襟
상인은 폐관(閉關) ¹³ 하는 날에 다니지 않고 운물(雲物) ¹⁴ 과 영대(靈臺) ¹⁵ 에서 샅된 기운을 살피네	商人不行閉關日 雲物靈臺方察祲		

역주: 문화재 고서적 전문위원인 권경렬 박사



1.천지의 …… 있다 : 과거 시험 제목으로, 《주역(周易)》·《복괘(復卦)》의 단사(彖辭)에 “《복괘》를 통해서 천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復 其見天地之心乎]”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따라서 이 답안은 《복괘》와 동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전고를 인용하여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 삼십육궁이 …… 봄이니 : 송(宋)나라 소옹(邵雍)이 〈관물음(觀物吟)〉에서 “이목 총명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천지조화가 부여한 것이 빈약하지 않다. 월굴을 찾아야만 물을 알게 되는 법, 천근을 밟지 않으면 사람을 어떻게 알까. 건괘가 손괘를 만난 때에 월굴을 보고, 지괘가 뇌괘를 만난 때에 천근을 보노다. 천근과 월굴이 한가히 왕래하는 중에, 삼십육궁이 모두 봄이로구나.[耳目聰明男子身 洪鈞賦與不爲貧 須探月窟方知物 未躡天根豈識人 乾遇巽時觀月窟 地逢雷處見天根 天根月窟閒往來 三十六宮都是春]”라고 읊은 데에서 나온 것이다. 성호는 이에 대해 “월굴은 음(陰)의 뿌리이니 음의 뿌리는 양이고, 천근은 양(陽)의 뿌리이니 양의 뿌리는 음이다.”라고 하였고, 또 “사람은 양에 속하고 물(物)은 음에 속하며, 양은 하늘을 맡고 음은 달을 맡았으니, 사람을 알려면 하늘을 알아야 하고, 물을 알려면 달을 알아야 한다. 하늘을 아는 것도 그 뿌리로부터 추구해야 하고, 달을 아는 것도 그 굴(窟)로부터 추구해야 하니, 그러므로 천근을 밟아 사람을 알고, 월굴을 더듬어 물을 안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星湖僊說 卷29 詩文門 天根月窟》

3. 이십사절기의 중간 : 동지(冬至)를 가리킨다. 고대 역법에서 태양력의 24기(氣)를 음력 12월에 배정시키면서, 음력에는 매달 2기가 있게 되는데, 달 초에 있는 것을 절기(節氣)라고 하고, 달 중간에 있는 것을 중기(中氣)라고 하여 총 24절기를 두었다. 24절기의 중간은 중기(中氣)의 시작 부분인 동지(冬至)이며, 이후로 대한(大寒)·우수(雨水)·춘분(春分)·곡우(穀雨)·소만(小滿)·하지(夏至)·대서(大暑)·처서(處暑)·추분(秋分)·상강(霜降)·소설(小雪)이 중기에 해당한다.

4. 양이 …… 생겨나고 : 동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역》에서 음효(陰爻) 일색인 곤괘(坤卦)에서 양효(陽爻) 하나가 아래쪽에서 생겨나면 복괘(復卦)가 되는데, 이를 만물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았다.

5. 일만팔천세 : 오랜 세월을 뜻한다. 태고 시대 전설적인 성왕(聖王)인 삼황(三皇) 중에 천황씨(天皇氏)는 형제 12인이 각각 1만 8천세씩 왕위를 누리었고, 지황씨(地皇氏) 또한 형제 11인이 각각 1만 8천세씩 왕위를 누렸다는 데서 온 말이다.《十八史略 太古篇》

6. 기함(機緘) : 기관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사물이 발생하고 변화하는 운세를 가리킨다.

7. 여도(驪圖) : 하도(河圖)와 같은 의미로, 중국 전설상의 임금인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黃河)에서 나온 용매(龍馬)의 등에 새겨진 그림으로, 1에서 10까지의 수가 반전의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복희씨가 이를 보고 《주역》의 팔괘(八卦)를 그렸다고 한다.

8. 삼재(三才) : 하늘, 땅, 사람을 가리킨다.

9. 손방에서 …… 나오니 : 천도가 순환함을 말하는 것이다. 《주역》〈설괘전(說卦傳)〉에 “상제가 동방인 진(震)에서 나와서 동남방인 손(巽)에서 깨끗하게 정제한다.[帝出乎震 齊乎巽]”라고 한 데서 나왔는데, 여기서 상제는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천도(天道)를 가리킨다.

10. 잠양이 …… 회복하니 : 잠양은 잠복해 있던 양이라는 뜻으로, 완전히 음효(陰爻)로 이루어진 곤괘(坤卦)에서 복괘(復卦)가 되면 내면에 잠복해 있던 양효(陽爻)가 하나 생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주역》 복괘에 “복은 형통하여 나가고 들어올에 병이 없어서 벗이 와야 허물이 없으리라. 그 도를 반복하여 7일 만에 와서 회복하니, 가는 바를 동이 이름다.[復 亨 出入无疾 朋來无咎 反復其道 七日來復 利有攸往]”라고 하였는데, 이 때 일(日)은 월(月)과 같은 개념으로 7개월 만에 음양(陰陽)이 서로 교체됨을 말하는데, 5월에 해당하는 구괘(姤卦)에서부터 양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다 없어졌다가, 그 후 7개월 만인 11월 복괘(復卦)에 이르러 양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여 회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11. 지뢰괘(地雷卦)의 효(爻) : 복괘(復卦)의 맨 아래쪽에 생겨나는 하나의 양효(陽爻)를 가리킨다. 복괘의 모양이 지(地)를 뜻하는 곤괘(坤卦)와 우뢰(雷)를 뜻하는 진괘(震卦)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12. 황종(黃鐘) : 동양 음악의 12율(十二律)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음이다.

13. 폐관(閉關) : 동짓날을 맞아 황제가 사방의 제후국을 순시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주역(周易)》복괘(復卦) 상사(象辭)에 “선왕이 복괘를 보고서, 동짓날에는 관문을 닫게 하고, 행상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임금 자신은 지방을 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경계를 삼았다.[先王 以 至日閉關 商旅不行 后不省方]”하였는데, 이는 땅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지극히 작은 하나의 양기(陽氣)를

보전하려는 경건한 마음에서 발로된 것이다.

14. 운물(雲物) : 구름의 빛을 가리킨다.

15. 영대(靈臺) : 주나라 문왕(文王)의 누대 이름으로 천기(天氣)를 살펴본던 곳이다.

16. 생화(生花) : 생동감이 넘치는 조화의 흔적을 말한다. 송(宋)나라 때의 학자인 정자(程子)가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구분은 다만 성인(聖人)인가 현인(賢人)인가를 구별할 뿐이다. 예컨대 맹자가 만약 공자가 하시던 사업을 하셨다면 진실로 다 하실 수는 있으나 다만 성인과 똑같이 하기가 어려울 따름이다. 비유하면 채색 비단을 오려서 조화(造花)를 만들어도 꽃모양은 모두 똑같지만 다만 저 생화(生花)처럼 생동감이 넘치는 조화(造化)의 공(功)이 없을 뿐이다.”라고 한 것에서 나왔다.

17. 정모(征茅) : 많은 현인들이 등용되어 함께 조정으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주역》의 태괘(泰卦)는 하늘과 땅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사귀는 형상인데, 그 초구(初九) 효(爻辭)에 “따 풀을 뽑음이라 그 무리로써 가는 것이니, 길하다.[拔茅茹 以其彙征 吉]”라고 하여, 군자(君子)가 벼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였다.

18. 석과(碩果) : 큰 과일로서, 성대한 세력의 소인배들의 핍박을 받으며 위태로이 남아 있는 군자를 가리킨다. 박괘(剝卦)가 다섯 개의 음(陰) 위에 하나의 양(陽)이 있는 상인 것을 가지고 비유한 것으로, 《주역》〈박괘(剝卦)〉의 상구(上九)에 “큰 과일이 먹히지 않은 것이니,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집을 허물리라.[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19. 생생(生生) : 사물을 낳아 길러주는 이치를 말한다.

20. 옥우(玉宇) : 임금의 궁궐을 가리키는 말이다.

21. 영해(瀛海) : 큰 바를 말하는데, 중국에 대해 외방인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22. 여섯 자식 : 팔괘(八卦) 중에서 방원도(方圓圖)의 양대 기준점이 되는 건(乾)과 곤(坤)을 제외한 태(兌)·리(離)·진(震)·손(巽)·감(坎)·간(艮) 육괘(六卦)를 말하는데, 부모 격인 건·곤에 대해 아들과 딸들이 되므로 여섯 자식[六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23. 춘대(春臺)의 옥촉(玉燭) : 춘대는 태평성대를 가리키고, 옥촉은 《이아(爾雅)》 석전(釋天)에 “사시의 기운이 화창한 것을 옥촉이라고 한다.[四氣和謂之玉燭]”라고 한 것에서 나온 것으로, 임금의 덕이 만들어내는 세상을 가리킨다.

24. 금덕(金德) : 고대 음양가(陰陽家)들이 오행을 설명하면서, 금과 가을, 서쪽을 관련지어 분류하였다.

〈 부안임씨 종손 - 茶 한잔 앞에 놓고 〉

부안임씨 대를 이어가는 혈통종손파 林秉一



종손(宗孫)!!! 문중의 문장어른과 함께 문중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아울러 종가의 혈통을 계승하고 조종(祖宗)의 제사를 도맡아 하는 사람이다. 종손에게는 본래 종족통리권(宗族統理權)도 가지고 있었고, 조종의 제사를 주관하며 제사때 초헌관(初獻官)의 예우는 물론, 독상등 종손대접에도 인색치 않았다.

올해로 고회를 넘긴 부안임씨 김포 종회의 종손은 월곡 개곡리에 누대로 터 잡아 살고 있는 임병일(林秉一, 密直公派 32世, 이하 宗孫)이다. “땃대 선친께서 조강거리 장에 다녀오시다가 어린 은행나무 1그루를 사오셨어요”, “뒤란에 가식했다가 이듬해 뒷산에 심은 것이 2백여년을 넘어 김포시청 관리보호수로 지정되고, 이 은행나무와 더불어 후손들이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윗 조상 계보는 10여년전에 작고하신 존경하는 부친 임세연(林世淵, 31世), 모친 淸州韓氏 사이에 2남(秉一, 秉二)을 두었고~조부(鍾德, 30世)~고조(萬基, 29世)~고고조(容圭, 28世)~肯模(27世)~承翰(26世)계보로 부안임씨를 뿌리로 한 명실상부한 종손파다.

26世 임승한(林承翰)은 삼형제중 종손파(장남)이고, 둘째 승익(承翼)할아버님은 마송 임종철 직계파로, 또 막내 승오(承五)할아버님은 개리 임종문 직계파로 오늘날 많은 후손을 퍼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純組때 둘째 승익할아버님은 정3품 당상관의 높은 대부돈녕부도(大夫敦寧府都) 벼슬에 올라 가문의 빛나는 영광을 안겨 주신분이다. 현재 종손가택의 거실 정면에는 承翼할아버님의 敎旨(우측 사진)가 고급액자에 담겨 원본 보관되어 걸려있다. 아울러, 종손은 슬하에 2남1녀를 두었다. 장손 성희(誠熙, 33世)가 손자(致俊, 34世)를 두어 종손의 계보가 대를 이어가고, 지난해부터 종손 아들에게 종사일을 하나하나 전승시켜 주고 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진작에 장남에게 예법이나 제사 그리고 종회에 관한 것을 교육 시켰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나도 아버님으로부터 너무 늦게 전수 받은 것이 아쉽고 미련이 남아있어요”.

고회를 넘긴 장손은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부안임씨 뿌리를 지키는 자 긍심보다는 그동안 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가문이 후대에까지 오래도록 물흐르도록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책무에서 더 아쉬움을 토로했

다. “요즘 옛날만 못하잖아요”, “세상 전반이 바뀌다보니 종손이 하는 일도 그렇지만 유교적 관점의 제사등 일들에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가을 김장을 담그다 만난 종손의 표정에서 종손다운 결기와 회안을 보는 마음이 초겨울 찬바람만큼 짙하게 시려왔다.

축문쓰는법, 제사지내는법, 흘기읽는법... 이런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체계적으로 교육받지도 못했고, 오로지 종손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많은 밤을 지새우며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다. 어떤 때는 근처의 다른 씨족한테 물어도 봤고 시제 때는 몰래 제사 지내는것과 종손의 역할을 훑쳐보다시피 하면서 배웠다.

남들은 시제때나 명절때 와서 절이나 하면 되지만 종손은 달랐다.축문을 쓰고 음식을 준비하고 미리 선조묘소도 단장하고,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잔 올리고 절하고.. 허리와 다리가 엄청 아파도 참아야하는 종손만이 느끼는 시련도 많았다. 그래서 종회 임종호(林鍾湖)회장님때부터 임무 분담을 시켰다. 절도 각각 종손파가 나눠 잔을 올렸고, 흘기도 종회 임도연총무가 전담하고, 음식도 다른데 맡겨서 해보니 종친들 반응도 좋았다. 하긴 제례에 참석했던 분들도 괜히 와서 서있다 절이나 하고 가는 것보다 함께 조상님들께 마음을 올린다는 내용에서 다들 좋아하시고 의미도 있었다. 대를 잇고 있는 아들 誠熙에게 늘 따끔하게 채찍질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어른들께 공손이 인사드리고, 제법도 가르쳐주고,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이유도 종손의 계보를 잘 잇도록 하자는데 있다. “아들에게 종사의 일을 가르치는 게 저도 그랬지만 좀 늦었습니다.”“올해부터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중 이고요. 잘 할것으로 믿고 있어요”

부창부수!! 옷대조에서 오늘에 이어져온 종손이라는 굴레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창송받지 못한다 해도 종손이 겪고 이겨내야하는 숙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족보(族譜)는 평생 20년 주기로 재편집한다. 현재 부안임씨 김포 종회의 족보 역사가 10년 정도 되었지만 늘 족보를 펴보고 공부한다.족보는 씨족이 오늘을 이어진 역사책이기 때문이다. 다른 씨족의 족보도 눈여겨 보면서 새로이 편찬될 족보 발간에 골몰히 신경쓰고 관심 갖는 일도 종손이 감내해야하는 일이라고 한다. 다른 종씨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족보, 종사일 등 잘 모르고, 대답도 못한다면 부안임씨 종손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늘 공부를 합니다. 그게 종손의 기본 자세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 학사공께서 심은 은행나무



▲ 매년 명절 때 종회 일가들이 함께 조상묘에 제례를 올리고, 준비하는 모든 일이 종손이 해야하는 일 중의 하나다.

부안임씨 정신은 ‘예의염치(禮儀廉恥)’입니다.

－ 林鍾瑚 중회회장, “후손에게 조상의 얼과 정신 계승 시켜야” －



임 중 광

前 김포시청 자치행정국장
現 김포우리병원 기획실장
부안임씨 김포청년회장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부안임씨(扶安林氏)의 시조는 임계미(林季美)이다. 시조께서는 고려 때 조정에서 신변의 위험을 받자 전북 부안군 보안면 포구에 숨어들었다. 후에 임금의 오해가 풀려 보안백에 봉해지고 그곳에 정착한다. 그래서 후손들이 부안을 본관으로 삼았다. 보안은 부안군 보안면의 지명이다. 그래서 부안임씨는 보안임씨 라고도 한다. 임계미는 고려 현종 때 평장사를 지냈으며 2세 임원도 문종때 문하시중 평장사를 지냈다. 1세조는 고려 때 좌리공신에 오른 임숙으로 한다. 임숙의 아들 임희재는 고려 때 제주 안무사를 지냈다. 그 뒤 손자 임창무가 상서를 지내는 등 자손들이 계속 출세하면서 가문을 중흥시켰다.

부안임씨는 고려 때 대표적인 거족이었으나 조선조에 들어서는 문과 급제자를 6명밖에 배출하지 못했다. 조선 개국의 역성혁명 때 전서공 임란수 등 자손들이 고려조에 대한 절의에 충실함으로써 관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 부안군 보안면, 전남 고흥군 포두면, 과역면, 보성군 벌교읍, 영광군 군서면이 부안임씨의 집성촌이다. 주요파는 밀직공파(密直公派), 전서공파(典書公派) 등이다. 부안임씨는 조선시대에 44명의 과거 급제자가 있다. 한편, 본관을 달리하는 임씨가 많다. 그러나 연원을 보면 ▲당나라에서 신라로 이주한 임팔급(林八及)을 시조로 하는 평택임씨와 ▲고려 충렬왕 때 대장군 임비를 시조로 하는 나주임씨로 크게 나눈다. 부안임씨는 임팔급을 원래 시조로 하는 성씨중의 하나다.

2000년 현재 나주 임씨가 236,877명, 평택임씨가 210,089명으로 두 임씨가 쌍벽을 이룬다. 부안임씨는 세 번째로 63,589명이다. 그밖에 예천임씨 58,403명, 조양임씨 31,924명, 울진임씨 15,334명, 강릉임씨 14,303명 등 이다. (참고문헌 : 정복규의 성씨칼럼 中)

김포에서의 부안임씨 집성촌이라면 월곶 개곡리와 포내리, 대곶 초원지리와쇄암리가 중심이다. 약 200여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포에서는 平壤趙氏, 安東權氏, 驪興閔氏 등 문중과 함께 扶安林氏 문중 또한 400여년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대문중 중 하나이다.

문중(門中)이란!! 공동의 조상을 지닌 자손들로 이루어져 조상의 제사를 목적으로 조직된 부계 혈연집단을 일컫는다. 일명 종중(宗中)이라고도 하며 자손이 포함되는 범위에 따라 대문중(大門中), 파문중(派門中), 소문중(小門中)으로 구분 짓기도 한다고 한다.

농촌지역에서 흔히 한마을내 또는 인근지역의 여러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족(同族)들로 종중이 형성되고 그 기능과 범위는 조상 숭배 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아마도 조선시대 유교적 성행에 의해 문중의 조직이 강화되었다고 믿어진다. 즉 자손들이 조상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중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킬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뿌리를 중시하는 문중에서는 족보(族譜)의 간행도 문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문중간의 자부심과 우월감과도 연결되어오고 있다. 비단 족보 간행뿐 아니라 제사, 비각건립 등 조상에 관계되는 잡다한 일들도 포함된다. 자랑할 만한 조상의 존재를 그러한 행사를 통해 두드러지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회원간의 결속과 대외적인



▲ 부안임씨 김포종중에는 매년 음력 10월 10일과 15일에 월곶 독골 및 검단시제를 지내고 조상의 숭모 정신과 예의염치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안임씨 종중에서는 林鍾瑚 중회회장의 관심과 열정으로 청년회(회장:임중광)와 여성회(회장:장영숙)를 조직운영하면서 부안임씨 조상들의 정신과 혼을 후세에 지속가능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성화 시켜나가고 있다. 이처럼 부안임씨 문중은 종중을 중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예의염치(禮儀廉恥)”는 중국 제나라 환공을 도와 춘추시대에 패업을 이루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주인공인 관중이 지은 관사의 목민편(牧民篇)에 나라를 버티게 하는 4가지 덕목이다. 이 4가지 덕목 중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고, 둘이 없으면 위태롭게 되며, 셋이 없으면 근간이 뒤집어 지고, 넷 모두 없으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 에서 유래된 말로써 부안임씨 종중에서 내거는 얼굴은 예의염치(禮儀廉恥)다.

예(禮)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고, 의(儀)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의리이며, 염(廉)은 청렴, 결백, 검소, 곧고 바름을, 치(恥)는 부끄러움과 창피함, 욕된 것을 아는 것을 말한다. 예절과 의리와 청렴과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를 중심으로 조상을 숭모하고 후손들에게 잘 전승하자는 게 부안임씨 종중이 가는 길이고 지향점이다.

부안임씨 김포종중 임중호(林鍾瑚) 회장은“조상이 있고 뿌리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의 후손에게 조상의 얼과 정신을 연결시키는게 종중의 역할입니다”라며“종중의 일원들이 가족과 함께 많이 참여하여 조상숭모 정신과 예의염치를 실천해 나갈 때 부안임씨의 위상은 물론 자긍심이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라며 종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扶安林氏 行烈圖』

世	密直公派 行列		典書公派) 行列	
26	魯	○	魯	○
27	○	喆	○	喆
28	容	○	憲	○
29	○	基	○	洙
30	鍾	○	栽	○
31	○	淵	○	默
32	秉	○	奎	○
33	○	熙	○	鎬
34	致	○	泳	○
35	○	鎬	○	植
36	永	○	炳	○
37	○	植	○	培
38	懌	○	鎭	○
39	○	培	○	洛
40	鐵	○	東	○
41	○	淳	○	煥
42	柱	○	時	○
43	○	烈	○	鉉
44			洪	○
45			○	榮
46			熙	○

국순전(麴醇傳)

— 술의 일생 —

서하 조부님의 대표작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가전체소설

국순(麴醇: 술)의 자(字)는 자후(子厚: 호뭇)인데, 그 조상은 농서(隴西) 사람이다. 90대 조상 모(牟: 보리)는 후직(后稷)을 도와서 백성을 먹이는데 공(功)이 있었다. 『시경(詩經)』에 이른바 ‘나에게 밀과 보리를 주도다’ 한 것이 그것이다. 모가 처음에 숨어 살면서 벼슬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밭 갈아 먹고 살 것이다.” 하며 밭이랑에서 살았다.

임금이 그 후손(後孫)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조서(詔書)를 내려 편만한 수레로 불렀다. 군(郡)과 현(縣)에 명령하여 가는 곳마다 후하게 예물을 보내게 하고, 신하에게 명령하여 직접 그 집에 나아가, 방아와 절구 사이에서 교분을 맺고 빛과 화합하여 티끌처럼 되게 하였다. 훈훈한 기운이 점점 스며들어서 온자(醞藉)한 맛이 있으므로 기뻐서 말하기를 “나를 이루게 하는 자는 벗이라 하더니, 과연 그 말이 옳구나.” 하였다. 곧 맑은 덕으로 소문이 나서 나라에서 그 집에 정문(旌門)을 세웠다. 임금을 따라 환구(圜丘)에 제사지낸 공(功)으로 중산후(中山侯)에 봉해지고, 식읍(食邑) 만 호(戶)와 식실봉(食實封) 오천 호(戶)를 주었고 국씨(麴氏)의 성(姓)을 내려 주었다. 5세(世) 후손은 성왕(成王)을 도와 사직(社稷)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아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강왕(康王)이 즉위하면서 점점 소홀한 대접을 받아 금고(禁錮)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리하여 후세에 세상에 나타난 자가 없고 모두 민간에 숨어 살게 되었다.

위(魏)나라 초기에 순(醇)의 아버 주(酎: 소주)가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고, 상서랑(尙書郎) 서막(徐邈)과 서로 친하게 조정에 그를 끌어들여, 말할 때마다 주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막이 주와 함께 사사로이 사귀어 점점 난을 일으키려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막을 불러 꾸짖으니 막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신이 주를 좇은 것은 그가 성인(聖人)의 덕이 있으므로 때때로 그덕을 마셨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를 꾸짖었다. 진(晉)나라가 왕위를 물려 받게 되자, 세상이 어지러울 줄을 알고 벼슬에 나아갈 뜻이 없어 유령(劉伶)·완적(阮籍)의 무리와 더불어 죽림(竹林)에 놀면서 그 일생을 마쳤다.

순(醇)의 기국(器局)과 도량(度量)이 크고 깊어,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萬頃蒼波)와 같아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뒤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 풍미(風味)가 한 시대를 기울게 하여 자못 기운을 사람들에게 더해 주었다. 일찍이 섭법사(葉法師)에게 나아가 온종일 담론하였는데, 그 자리게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절도(絶倒)하였다. 마침내 유명하게 되어 호(號)를 국처사(麴處士)라 하였다. 공경(公卿)·대부(大夫)·신선(神仙)·방사(方士)로부터 머슴꾼·목동·오랑캐·외국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맛본 사람은 모두 그를 흠모하여, 매번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이 오지 않으면, 모두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하니 당시에 애중(愛重)됨이 이와 같았다. 태위(太尉) 산도(山濤)는 감식(鑑識)의 능력이 있었는데, 일찍이 보고 말하기를 “어떤 늙은 할미가 이런 아이를 낳았는가. 천하의 백성을 그르칠 자는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 하였다. 공부(公府)에서 불러 청주종사(淸州從事: 좋은 술)를 삼았으나 격(鬲: 명치)의 윗쪽은 마땅한 자리가 아니므로

평원독우(平原督郵: 나쁜 술)를 시켰다. 얼마 뒤 탄식하기를 “나는 쌀 닳말 때문에 허리 굽혀 시골의 하찮은 관리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마땅히 술 단지와 도마 사이에 서서 담론할 것이다.” 하였다. 그때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 얼굴에 자주빛 기운이 떠도니, 반드시 귀하게 되어 천중(千鍾)의 녹(綠)을 누릴 것이다. 마땅히 좋은 값을 기다려 팔라.” 하였다. 진(陳)나라 후주(後主) 때에 양가(良家)의 자제로서 주객원외랑(主客員外郎)에 임명되었는데, 임금이 기국(器局)이 남다름을 보고 장차 크게 쓸 뜻이 있었다. 그리하여 금구(金甌: 금으로 만든 사발)로 덮어 뽑아서 광록대부예빈경(光祿大夫禮賓卿)으로 삼고 작(爵)을 올려 공(公)으로 삼았다.

대개 군신(君臣)의 회의에는 반드시 순으로 하여금 짐작(斟酌)케 하니, 나아가고 물러나며 주고받은 것이 조용히 뜻에 맞아, 임금이 깊이 받아들이고 말하기를 “경(卿)이야말로 곧고도 맑아서, 내 마음을 열어 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하였다. 순이 권력을 잡게 되자, 어진이와 사귀고 손님을 접대하며, 늙은이를 봉양하고 음식을 접대하며, 귀신에게 제사지내고 종묘(宗廟)에 제사지내는 것을 모두 순이 관장하였다. 임금이 밤에 잔치를 베풀 때도 오직 그와 궁녀만이 모실 수 있었고, 아무리 가까운 신하라 하더라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임금이 곧드레 만드레 취하여 정치를 돌보지 않았고, 순은 제 입에 재갈이 물려 말하지 못하므로, 예법(禮法)을 아는 선비들은 그를 미워하기를 원수같이 하였으나 임금이 매양 그를 보호하였다.

순은 또 돈을 거둬 들여서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니 당시 연론이 그를 더럽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옛날에 두예(杜預)는 『좌전(左傳)』에 심취한 버릇이 있었고, 왕제(王濟)는 말[馬]에 몰두한 버릇이 있었는데, 신(臣)은 돈에 집착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크게 웃으면서 보살핌이 더욱 깊었다. 일찍이 입궐하여 임금 앞에서 아뢴 때, 순이 본래 입에 냄새가 있으므로 임금이 싫어하며 말하기를 “경은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 나의 부림을 감당치 못하는가?” 하였다. 순은 드디어 관(冠)을 벗고 사죄하기를 “신이 받은 작(爵)을 사양하지 않으면 망신(亡身)할까 두려우니, 신이 집에 돌아가도록 허락하신다면 신은 분수에 만족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명령하여 부축하여 나왔다. 집에 돌아와 갑자기 병이 나서 하룻저녁에 죽고 말았다. 아들은 없고 족제(族弟) 청(淸)이 뒤에 당(唐)나라에 벼슬하여 내공봉(內供奉)에 이르렀고 자손이 나라 안에 번성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국씨(麴氏)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功)이 있었고 청백(淸白)을 자손에게 남겨 주어 창(鬯)이 주(周)나라에 있는 것과 같아 아름다운 덕이 하늘에까지 이르렀으니, 참으로 할아버지의 풍도(風度)가 있다 하겠다. 순(醇)이 들병[挈瓶]의 지혜로 독 들창(甕)에서 일어나서 일찍 금구(金甌)의 선택에 뽑혀 술 단지와 도마에 서서 담론하면서도, 옳은 것을 올리고 그른 것을 막는 일을 하지 않고, 왕실(王室)이 혼란하여 엮어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에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거원(巨源: 앞에 나온 산도)의 말이 참으로 믿을 만하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박사 김진영 역주